고령화 정책 브리프 26번: 디지털 시대의 나이듦

Policy brief: Ageing in the Digital Era

(UNECE Policy Brief on Ageing No. 26, July 2021)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디지털 기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하기

(Enhancing digital literacy to reduce the digital skills gap)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가용성 및 비용 감당 여부 측면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질문(관련 문헌에서 "가진 자 — haves"와 "가지지 않은 자 — have nots"의 "1단계 디지털 격차"라고 언급됨)을 넘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서의 격차와 그 이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34] 2단계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인터넷,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의 결과물, 인터넷 보안 요건의 충족 등과 관련된 기량(skills), 역량(competence) 및 능력(ability)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의 성공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학습은 조기에 시작하고 평생 그 기량이 유지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성인과 만년의 삶에서 개인 및 직업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모든 연령층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빠른 기술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생애 과정의 접근(life-course approach)이 필요하다. 널리 퍼진 연령주의적 생각들은 배움이 만년에 멈추고, 노인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34] https://www.emeraldgrouppublishing.com/news-and-press-releases/evolving-digital-divide-first-third-level

배울 수 없다고 가정한다. 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능력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한 모든 연령대에서 인지 및 개인적 성장(cognitive and personal growth)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현재 있다.[35]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노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만년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동년배 또는 세대 간 훈련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6]

체코의 디지털 리터러시 전략(Digital Literacy Strategy) 2015 – 2020을 위한 실행 계획은 디지털 소외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개선을 위한 세대 간 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한다. 관련 대책에는 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lifelong learning centres)와 같은 디지털 센터의 공공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과 같은 공공의 공간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습 센터 설립이 포함된다.[37] 슬로바키아에서 주요 디지털 개혁의 일환으로 계획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9,000명의 노인에게 기초 디지털 기술 훈련을 무료로 제공하는 계획과 함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노인의 디지털 기량을 높이고, 그에 대한 분석과 실험을 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노인, 즉 "디지털 챔피언(digital champions)"이 요양 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care homes and community centres)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모집될 것이다.[38]

[35] Leanos et al, 2020.

[36] Lee and Kim, 2018.

[37]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Focal Point on Ageing from the Czech Republic(체코의 고령화 연락기관에 의해 제공된 정보).

[38]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Focal Point on Ageing from the Slovak Republic(슬로바키아의 고령화 연락기관에 의해 제공된 정보).

연령주의의 해결과 기술 사용 노인에 대한 담론의 변화

(Tackle ageism and change the narrative about older technology users)

기술 사용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negative stereotypes and prejudice), 그리고 노인의 디지털 기술 사용을 단념시키는 자기 지향 연령주의(self-induced ageism)는 디지털 기술의 습득, 적극적인 인터넷 사용, 디지털화로부터의 혜택을 거두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에 반한 이러한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지역(UNECE)의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는 기술 사용 노인을 둘러싼 담론을 바꾸고 연령주의적 생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노인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수용하고 그들의 디지털 기량을 개발하는 데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노인의 다양한 필요와 선호도에 반응하여 제품과 서비스가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미디어와 광고(the media and advertising)는 사회적 담론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 상품(technology product)을 광고할 때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참여시키거나 노인을 익숙한 사용자로 묘사함으로써 포용적이고 비연령주의적인 디지털 환경(inclusive and ageism-free digital environments)을 촉진하는 데 미디어가 기여할 수 있다. 인식 제고 캠페인과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노인 단체 협회(The German National Association of Senior Citizen's Organizations, BAGSO)는 디지털 기술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다룬 만화 창작을 촉진하는 대회를 기획했다. 이 대회에서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등의 11세에서 85세 사이의 참가자 241명이 396개의 작품을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이 활발하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39]

[39] https://www.bagso.de/themen/karikaturenwettbewerb/(in German language).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에서의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량 교육

(Digital skills training for older persons in Austria, Finland and Germany)

"테크놀로지 브리프" — 태블릿과 스마트폰, 오스트리아

("Technology in Brief" — Tablets and Smartphones, Austria)

"테크놀로지 브리프(Technology in Brief)"는 컴퓨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및 태블릿 등의 사용 기술을 노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소셜 미디어 사용은 노인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술이다. 관련 강좌는 노인의 필요와 지식에 맞춘 유연한 학습 콘텐츠와 젊은 트레이너의 각별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르는데, 세대 간 교류, 지역 구조 고려와 참여자를 위한 낮은 비용(intergenerationality, regional structure and low costs for participants) 등이 그것이다. 젊은 트레이너는 가까이 사는 노인을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제공한다. 노인의 필요에 맞춘 교육 자료의 개발과 상담 전화 시스템의 구축은 상기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협업, 오스트리아

(Collaborative Work with Digital Media, Austria)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촉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세계와 그 세계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 디지털 기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사용법에 관한 저렴하고(low-cost), 연령에 적합하며(age-appropriate), 성 인지성(gender-sensitive)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기량을 높여 그들이 최신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 관리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 프로젝트는 자율적인 학습 네트워크(autonomous learning network)를 조직하고, 그룹 및 개인 지도 세션을 "디지털 카페(Digi-Café)"에서 진행하며, 팟캐스트(podcast)와 비디오를 중심으로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승수 활동(multiplier work)과 기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식 제고 조치와 학습 과정 디자인을 통한 노인 포용과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노인의 인터넷 서핑" 활동, 핀란드("SeniorSurf" activities, Finland)

상기 프로젝트에서는 "노인의 인터넷 서핑" 활동을 위해 노인을 위한 디지털 가이드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지원 자료를 제작하며, 이러한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게시한다.

노인을 위한 디지털화 및 교육 서비스 센터, 독일 (Service Center for Digitalization and Education for Older People, Germany)

이 서비스 센터는 전화, 온라인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노인이 기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여 노년기의 교육과 디지털화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00 개 이상의 강좌와 세미나를 제공한다. 노인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련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웹사이트(www.wissensdurstig.de)는 교육 제공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 센터는 독일 노인 단체 협회(BAGSO)가 주최하고 독일연방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자금을 지원한다(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디지털 엔젤" 프로젝트, 독일("Digital Angel" project, Germany)

독일연방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디지털 엔젤(Digital Angel, Digitaler Engel)" 프로젝트를 통해 60 세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점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자기 결정적인 삶(self-determined lives)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젝트는 문턱이 낮은 자문 서비스이며 찾아가는 접근법(outreach approach)을 따른다. "디지털 엔젤"은 온라인 쇼핑이나 사회적 교류를

안전하게 하는 법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개인 간 접촉을 통해 알려준다.

출처: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의 고령화 관련 연락기관과 독일 노인 단체 협회(BAGSO)에서 제공하는 정보.

세대 간 접촉과 학습은 노인의 디지털 기술 수용을 강화하고 연령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강조됐다.[40] 세대 간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노인과 젊은이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노인의 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 증가뿐만 아니라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해결을 위해 노인에 대한 젊은이의 이해를 증진시킨다.[41] 디지털 학습의 맥락에서 연령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대 간 개입은 나이듦에 대한 정보, 경험적 학습과 긍정적인 정보에의 노출 등을 포함할 수 있다.[4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탐색(Safely and securely navigate digital environments)

인터넷 보안은 노인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한 측면이다. 노인을 위한 디지털 훈련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기(online scam)를 알아보고 피하기,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하기,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퇴치 소프트웨어(anti-virus and anti-spy software)를 이용해 바이러스로부터 컴퓨터와 기기를 보호하고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s)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의 보안에 주의하기 등과 같은 인터넷 보안(Internet security)의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하기와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 은행

[40] Burnes et al, 2019; López Seguí et al., 2019.
[41] Brown et al, 2018.
[42] Levy, 2018.

이용 시 안전하게 거래하기 등이 포함된다.

동년배에게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노인들, 룩셈부르크

(Older persons teaching their peers in safely and securely using digital technology, Luxembourg)

룩셈부르크의 "인터넷 사용 노인(Silver Surfer)" 프로젝트는 다른 노인에게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인터넷 보안 교육을 받은 노인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뿐만 아니라 노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또한 장려한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이 노인을(seniors for seniors)" 가르치는 방식으로 노인을 "인터넷 사용 노인"으로 교육하고 승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인의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평생학습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 노인이 기초교육을 받은 후 특정 주제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는 노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기여와 능력을 가치 있게 만든다. 상기 사업은 룩셈부르크의 가족·사회 통합부(Ministry of Family Affairs, Integration and the Greater Region)와 인터넷 보안 전문 정부 기관(BEE SECURE)이 2014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출처: 룩셈부르크의 고령화 관련 연락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동적이고 건강한 나이듦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 활용

(Leverage the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ies for active and healthy ageing)

로봇공학(robotics), 스마트 리빙 애플리케이션(smart living application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는 의료 서비스를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임인 동시에 만년에 독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 도구(service delivery tools), 보조 장치(assistive devices), 내장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또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built-in monitoring applications or interactive communication tools)가 의료 또는 돌봄 업무에 이용되고 있으며 점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봇공학은 노인의 행동과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이 배치되고 있다.[43]

디지털 기술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나이듦을 촉진하고 고령 인구의 증가하는 돌봄 요구에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 강조했듯이, 기술은 원격 의료(telemedicine) 등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재활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 기술과 지지하는 환경(assistive technology and supportive environments)은 만년의 장애를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44] 결과적으로 디지털화는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외로움 감소와 교류 향상

(Reduce loneliness and enhance connections through digital communications)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은 만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43] Human Rights Council, 2017.
[4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02.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 방문이 불가능할 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과 계속 연락할 기회를 제공한다. 외로움은 신체·정신적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다루는 도구로서의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은 지난 몇 년간 널리 탐구되어 왔다.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비디오 게임, 로봇공학, 개인 알림 정보와 친목 관리 시스템, 동료 지원 채팅방(peer support chat rooms),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s), 원격진료(telecare) 및 3D 가상 환경(3D virtual environment)과 같은 기술에 기반한 개입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45]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사이트와 같이 대면 교류를 용이하게 하며 접근이 쉬운 웹사이트는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confinement and physical distancing measures)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악화시켰으며, 이 기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쏟아졌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많은 회원국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은 기술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들이 나오도록 추동했다.[46]

[45] Khosravi et al, 2016.
[46] see also UNECE Policy Brief on Ageing No. 25 on Older Persons in Emergency Situations (UNECE 2020a), Box on "Digital Inclusion of older persons in Belgium, France, Israel, Portugal and Slovenia, p.14(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고령화 정책 브리프 25번 긴급상황에서의 노인 — UNECE 2020a,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의 노인에 대한 디지털 포용, 14페이지 상자 참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교류 및 웰빙 향상

(Enhancing social interaction and well-being through digital communications)

IT 와 정신적 웰빙에 대한 교육, 몰타

(Training on IT and mental well-being, Malta)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도전을 고려하여 2021 년 몰타에서는 정신 건강(mental health)과 웰빙(well-being)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IT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태블릿 기기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장려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지원 그룹(support group)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약 2 시간씩 4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노인 요양 시설과 활동적 고령화 센터(Active Ageing Center)에서 제공된다. 이 곳에서는 태블릿 기기 사용하기, 소셜 미디어 프로필 열기 및 소셜 미디어 안전 문제 다루기, 친구 요청 보내기 및 수락하기, 모바일 데이터 사용하기 및 와이파이(Wi-Fi)에 연결하기 등을 가르친다. 참가자들은 특히 온라인에서의 실재(online presence), 기술 사용 등과 관련하여 정신적 웰빙을 관리하는 법과 정신 건강에 대해 추가로 배운다. 프로그램 끝에 각 그룹에서 챔피언을 선정하여 참가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활동적 고령화를 통한 노인의 웰빙 증진, 아제르바이잔 (Promoting the well-being of older persons through Active Ageing,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의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와 아제르바이잔 유엔인구기금(UNFPA Azerbaijan)의 공동 프로젝트 틀 안에서 노인이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재와 서비스(public goods and services)에의 접근과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훈련을 통해 노인의 능력을 키운다. 온라인 결제와 노인에게 필요한 IT 장비 및 인터넷 접속권 제공 등과 같이 온라인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디지털 기량에 관한 컴퓨터 강좌는 이 활동의 일부분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시각 장애 노인을 위한 온라인 오디오 북 도서관 구축(CD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오디오 북 녹음을 위해 유명한 퇴직 뉴스 진행자가 참여)도 포함된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노인에게 이 질병에 대항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격리 기간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을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온라인 비디오 게시 장소와 모임이 조직되었다. 온라인 세션에서는 노인의 관심과 필요를 고려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건강한 삶, 영양, 신체·정신적 건강, 건축, 예술과 공예 및 요리 등이 그것이며

전문가가 진행하였다. 의사(안과 전문의, 심장 전문의, 내분비 전문의)와의 특별 세션이 구성되었으며, 그룹 세션 및 상담이 심리학자와 이루어졌다. 신체 운동 세션은 줌(Zoom)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노인과 공동으로 제작한 고무적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비디오 또한 게시되었는데, 이는 사기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자신이 촬영한 짧은 영상에서 노인들은 유명 시인의 시 또한 낭송했다.

Uniper 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스라엘

(Together Program with Uniper in Israel)

팬데믹 기간 노인의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450 개의 Uniper 기기를 설치했다. Uniper 기술은 생중계와 쌍방향 건강 콘텐츠, HIPAA 를 준수하는 원격 영상 진료(video telehealth), 원격 시험(remote assessments), 가족 커뮤니케이션과 또래 그룹 등을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사회 참여를 위한 TV 와 모바일에 기반한 기술이다. 사용자에게 바로 제공되는 이 기술(end-to-end solution)은 TV 또는 이동식 장치를 쌍방향 연결 허브로 변환하여 노인이 집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몰타, 아제르바이잔 및 이스라엘의 고령화 관련 연락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대면접촉이 불가능할 때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수 있지만,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노인에게 인간적 교류는 특히 중요하다. 직접 참여(in-person participation)라는 선택지 없이 일상의 서비스나 여가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질 때, 디지털 기량이 부족하거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소외된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종교의식과 서비스, 스포츠 수업 또는 의료 서비스가 자주 온라인에서만 개최되거나 제공되어 기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배제와 더 큰 외로움의 인식으로 이어졌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건강한 고령화 및 독립생활 촉진

(Foster healthy ageing and independent living through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보조 장치(assistive device)는 노인이 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동작 센서 및 안전 시스템(motion sensors and safety systems)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신체 및 인지 장애(physical and cognitive impairments)를 경험하는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이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보조 장치는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노인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47]

[47]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8;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20b.

건강관리와 독립생활 촉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아일랜드 (Digital technology to foster health management and independent living in Ireland)

아일랜드 자선 단체인 ALONE('홀로'라는 뜻)의 BConnect('연결된'이라는 뜻) 서비스는 노인이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집에서 더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BConnect 서비스는 기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영역 등을 식별하기 위해 노인과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후 ALONE 은 맞춤형 기술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와이파이(Wi-Fi)와 태블릿 등의 정보 관련 자원; 돌봄 제공자,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기; 노인이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시계(smart watch), 혈압 모니터(blood pressure monitor) 및 심전도계(ECG)와 같은 전자 보건 기기(e-Health device); 취약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동작 센서(motion sensor), 출입문 센서(door sensor), 스마트 초인종(smart doorbell)과 같은 스마트 홈 기기; 노인에게 추가적인 안전 및 보안 조치를 제공하는 위치 파악 시스템(GPS) 기능이 있는 휴대용 비상경보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기는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돌봄 제공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노인 및 돌봄 제공자에게 더 나은 돌봄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가정 또는 현관에서의

활동에 기초한 스마트폰 경보, 사용자가 활성화한 비상경보, 상호 작용 없이 돌봄 제공자의 스마트폰에서 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Alone 은 노인이 이러한 기기의 혜택을 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Alone 은 노인, 노인의 가족, 보건의료 시설과 공인된 주거단체(Approved Housing Bodies)에 기술적 혜택을 주는 설치를 200 회 이상 실시했고 시범사업을 4 회 이상 완료했다. Alone 은 아일랜드의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보건 서비스 디지털 전환 팀(HSE Digital Transformation Team)과 함께 리빙 랩(living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복지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술적 처방을 위해 지원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Support Coordinator)들을 교육하고 있다.

출처: ALONE 에서 제공한 정보. https://alone.ie/what-we-do/bconnect/

보건 정보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 캐나다와 이탈리아

(Digital technology to foster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s in Canada and Italy)

중증 질환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 호스피스, 캐나다

(Virtual Hospice providing information and support to people living with advanced illness in Canada)

캐나다의 가상 호스피스(Canadian Virtual Hospice, CVH)는 중증 질환, 완화 치료 및 슬픔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온라인 포털이다. 이 서비스는 중증 질환자, 그 가족 및 돌봄 제공자, 의료 제공자, 연구원 및 교육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가상 호스피스는 몇몇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VirtualHospice.ca, PortailPalliatif.ca, MyGrief.ca, LivingMyCulture.ca, LivingOutLoud.life, VivreAFond.ca, Methadone4Pain.ca, KidsGrief.ca, and DeuilDesEnfants.ca). VirtualHospice.ca 는 캐나다인에게 불치병, 상실 및 슬픔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쌍방향의 2 개 국어로 된 웹사이트이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기(Ask a Professional)" 섹션은 캐나다인과 보건 전문가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원격 진료(e-health)의 선구자로 꼽힌다. 이 웹사이트는 15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문한다. 캐나다의 가상 호스피스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콘텐츠를 지향하지만 나이듦과 쇠약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또한 포함하는데, 장기요양에서의 중증 쇠약함을 위한 완화적 접근에 대한 팸플릿(Palliative Approach for Advanced Frailty in Long Term Care pamphlet), 임상 도구(예,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계획 평가—Advance Care Planning Evaluation in Elderly Patients) 및 비디오(예, 성 소수자의 나이듦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대안 — Coping and the experience of LGBT aging)와 같은 간행물이 그것이다. 캐나다의 가상 호스피스는 14 년 동안 완화의료와 슬픔에 대한 포괄적인 온라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온 역사가 있고 수상 경력이 있는 원스톱 자료 제공처이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협력자와 이해 관계자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웹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7 개의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연간 160 만 명의 사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정도로 성장했다.

정보와 보건 서비스에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의료 혁신, 이탈리아

(Telemedicine innovations enabling remote access to information and health services in Italy)

트렌티노(Trentino)의 TreC_Televisita 는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는 원격진료(telemedicine examinations) 서비스로서 전문의 외래 서비스(specialist outpatient services)로 분류됐다. TreC_Televisita 는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돌보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어, 코로나 19 긴급 상황 동안 의료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병원에서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혁신으로는 코로나 19 발병과 관련된 고유하고 인증된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는 TreCovid19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코로나 19 관련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끊임없이 긴장한 노인의 높은 불안감과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코로나 19 로 격리되어 집에 머무는 노인에게 의료 돌봄 전문가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http://mhealth-hub.org/mhealth-solutions-against-covid-19).

출처: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고령화 관련 연락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노인에 대한 디지털 포용과 권한 부여를 향하여'의 '디지털 기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하기'와 '활동적이고 건강한 나이듦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 활용'을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ece.org/sites/default/files/2021-07/PB26-ECE-WG.1-38_0.pdf).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elee@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